

## 림프관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양 정 인

### Lymphangioma of Fetus

Jeong In Yang, MD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선천성 림프관종은 다수의 확장된 림프관으로 이루어진 림프계의 양성 종양으로 주로 두경부, 액와에 생기며 다음 호발부위는 몸통, 사지, 복부 및 종격동 순이다. 예후는 매우 불량하나 림프관종의 위치, 크기 및 침범부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특히 염색체 이상과 동반율이 높은 두경부의 cystic hygroma, 또는 증후군의 일부 양상으로 림프관이 생긴 경우에 더욱 불량한 출생 후 경과를 보인다. 분만 후의

치료는 수술적 방법으로 절제술 및 수술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경화용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병소가 국한되어 있어 완전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임신 35+2주에 실시한 초음파 검사상 8.08×3.43 cm 크기의 분명한 경계와 다양한 두께의 중격이 있는 다방성의 낭성 구조물이 좌측 태아 대퇴부 피부 아래 연부 조직에서 팽창된 형태로 관찰되었으며 색도플러 초음파검

사에서 혈류파형은 보이지 않았다. 드문 부위의 낭성 림프관종 진단하에 질식분만으로 인한 예측가능한 태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 38주에 남아 2800 gm을 제왕절개

분만하였으며 출생 후 초음파 검사 및 자기공명 검사로 확진하였다. 신생아 염색체 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현재 추적 관찰중이다.